

방학 맞은 대학가 원룸 단기 임대 성행

여름 방학을 앞두고 대학가 원룸촌에 '단기 전대차(집주인에게 방을 빌린 세입자가 그 방을 또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빌려주는 재임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기 전대는 부동산과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방 주인이 임의로 방을 빌려주는 전대차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자칫 법적 분쟁까지 휘말릴 소지가 커 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광주지역 대학가 주변 부동산 등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앞두고 월세 방 세입자인 대학생들이 다시 세를 놓은 단기전대차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 동의 없어 임차인·전차인 피해 우려 "임대인 동의 받고 반드시 관련 계약서 써야"

대학생들의 방학기간 단기전대는 약 2개월 동안 월세 부담이 없어 돈을 아낄 수 있고, 단기로 머무를 곳이 필요한 학생들은 방을 구할 수 있어 대학가 원룸촌에선 흔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주로, 방학 동안 귀향·어학연수 등으로 원룸을 비우는 자취생들과, 계절학기·실습 등으로 이 기간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려는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계약이 성사된다. 때문에, 대학가 원룸촌에선 전대차 계약이 흔한 풍경으로 통한다.

실제, 각 대학의 인터넷게시판과 온

라인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 원룸을 방학기간에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 거래가 빈번하다. 관내 A대학교의 인터넷 게시판엔 '방학기간 방 있어요', '7-8월 방 구해요'라는 단기재임대 글과 방을 구한다는 내용이 10여 건 올라 있다.

하지만, 전대차 계약은 법률상 불법이고 분쟁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질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계약해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다수 대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불법임을 아는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방을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두고, 전대차를 놓는 학생들은 오히려 방학 동안 방을 비워 놓고 월세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선대 인근 원룸촌에서 자취하는 정모씨(22)는 "1년 중 절반 가량은 비워두는 방인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게 불합리하고 부담감이 크다"며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어차피 안 쓰는 방이어서 재임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변 원룸촌의 또다른 학생은 "전대차 계약이 불법인줄 몰랐다"며 "임대 계약 기간 만큼은 세입자의 권리인 줄 알았는데 관련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불법 전대차의 맹점을 악용해 사기행각도 우려된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엔 단기 전대를 위해 예치금을 입금한 직후, 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피해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두달 치 월세를 미리 내고 재임차를 했는데 원룸의 임대 기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경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된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안전한 전대 거래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구두로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 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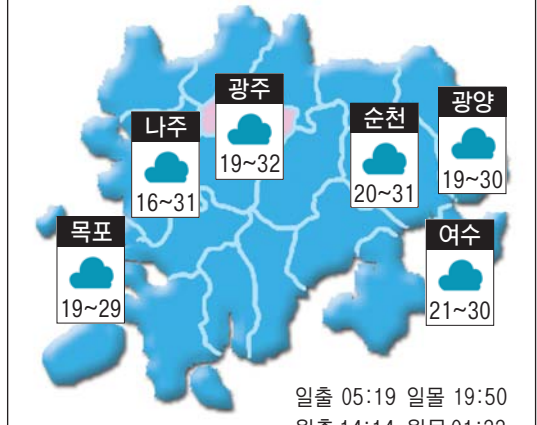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in Jeonnam,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Source: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장성 '또 싱크홀' 주민 불안

논같이 하던 트랙터 구덩이에 바퀴 빠져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대형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또다시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장성군 와룡리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호남고속철도와 150m 떨어진 농경지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와룡리 일대서만 벌써 6번째 싱크홀이다. 이번 싱크홀은 모를 심기 위해 논갈이 작업을 하던 중 트랙터 바퀴가 땅속에 빠지면서 발견됐다. 기존에 발견된 8-9m보다 규모는 작지만 땅속으로 이어지는 길이가 깊어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호남고속철로와 100여m 떨어진 농경

지에서도 폭 5~10m, 깊이 2~3m 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주민 관계자는 "매년 이 시기에 대형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석회석 채굴 과정에서 주변 지반 등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회석 채굴 관계자는 "싱크홀은 광산 발파와 무관하고, 자연 현상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장성군과 주민대책위는 싱크홀 원인규명을 위해 정밀 용역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용역조사가 이뤄지면 정확한 싱크홀 원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또다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광주 북부소방은 21일 광주역과 NC백화점 앞에서 '소방차량 길터주기' 출동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검찰 어려운 현실, 지혜 모아 대처"

양부남 광주지검장 이임식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이 처한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검찰 모두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양부남(사법연수원 22기) 광주지검장은 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광주지검을 떠났다. 양 검사장은 이번 검찰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검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6개월만(광주지검장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공백 기간이었다"며 공백기에 조직을 잘 이끌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아 자리를 비웠으며 광주지검은 그동안 차장검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고광민 기자



양 검사장은 성경 구절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언급하며, "인생에 기쁨과 슬픔은 변곡점이 있다.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슬플 때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나와 '검찰의 꽃' 검사장 자리까지 올라 'SKY' 출신이 즐비한 법조계에서 '흙수저 검사'로 통한다. /황애란 기자

대학생, 개인방송 영향력 크게 받아

호남대 김덕모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중 유튜브를 가장 선호하고, 사용자의 28.6%는 유료 결제를 통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규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덕모 교수와 이승현 학생(3학년) 등 5명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송원대·남·녀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태와 인식을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품별 시청빈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만족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소비하는 이유,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선정성·폭력성 규제 필요성 여부 등 5가지 항목을 물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유튜브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톡이 3.0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시청 동기는 '이용하기 편리해서'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3.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선정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자가 선정성 규제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성 규제의 필요성은 여자가 규제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결제 이용 조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가 28.6%, 이용해 본 적이 없다가 71.4%로 나타났다. 유료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본 사람들 중 고액에 해당하는 5만원 이상을 결제했다고 답한 학생들도 37.8%를 차지했다. /황애란 기자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합니다. 회전하는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얼라인먼트된 골프공

엑스페론



- CHECK!
- [x] 골프공은 완전한 구체가 아닙니다.
- [x] 골프공은 무게중심이 뒤틀려있습니다.
- [x] 골프공은 속이 더중요합니다.
- [x] 실력보단 골프공을 먼저 의심하세요.



www.xperon.co.kr | 02-2070-5009 | trade@xperon.co.kr